

공존공생의 공감대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한 용 교

(사)한국포장협회 명예회장

전국의 포장산업계, 관련단체, 연구기관 및 지도기관 종사자들에게 병술(丙戌)년 새해 뜻하는바 이루시고 행복과 축복이 늘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한 해가 마감되고 새해가 오는 시점이면 지난해에 좀 더 잘할 수 있었다는 후회감과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준비하곤 합니다만, 그러나 지난해는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기점이기도 하거니와, 사상 유래가 없었던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우리 포장산업계로서는 실로 어려웠던 한해로 기억됩니다.

더구나 동남아산 저가의 포장소재들이 국내시장에 일부 유입되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형 포장재사용자(user)들은 이를 계기로 포장재 가격인하를 위한 압력수단으로 이용하여 많은 포장재 생산업체들이 적자경영을 감수해야하는 위기의 국면이기도 했으며 또한, 포장업계 내부에서도 단기적인 위기극복을 위해 출혈경쟁까지 겹쳐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스러웠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은 일시적인 방편으로는 통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도산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지난 세월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포장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경쟁력제고를 위한 부단한 연구개발, 정보공유를 통한 선의의 경쟁, 공존공생의 대원칙을 전제로 한 서로의 신뢰구축, 회원사 제품구매 확대 등 우리 스스로 만든 제 규약들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만이 애써 만든 우리의 제품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경쟁력 제고의 첩경임을 누차 말씀드려왔고 병술년 새해 또다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협회는 타 단체들과는 달리 포장소재, 가공, 잉크, 제판, 기계, 열성형 등 포장 원·부자재업계가 망라되고 있어서 서로 합심한다면 어떠한 난관들도 극복하기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 포장협회의 설립목적인 “공동번영”을 상기하시고 공존공생 한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굳게 다짐할 것을 감히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2006년 새해 전국의 포장산업 종사자들에게 계획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